



# VANITAS

신미경 개인전

2022.02.24 – 03.23

Art Project CO

## 1. 전시개요

전 시 명	VANITAS_MEEKYUNG SHIN
참여 작가	신미경
장 소	Art Project CO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6 트리마제상가 102호)
일 시	2022. 02. 24 (목) – 2022. 03. 23 (수) (총 27일간)
관람 시간	화~금 10:30-6:00pm 토 10:30-5:00pm (일/월 휴무)
담 당	임은혜   t. 02.2088.7567   m.010.2923.1195

표지작품 ▷ Painting Series #90, Soap,Fragrance,Frame, 113x151.6cm, 2014

## 2. 전시 소개

아트프로젝트 씨오는 2022 년도의 첫 기획전으로 2 월 24 일부터 3 월 23 일까지 신미경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트랜스레이션을 가로지른 VANITAS 를 새로운 개념으로 끌어들이 기존 '페인팅 시리즈'와 '고스트 시리즈'에 내재한 가능성의 문을 두드리는 신미경 작가의 작업을 선보인다. 라틴어로 허무·허영·덧없음을 뜻하는 바니타스(Vanitas)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nitas vanitatum Et omnia vanitas)"라는 성경 전도서 1 장 2 절에 나오는 구절로, 인생무상의 의미를 담은 허무주의로 해석된다.

바니타스를 현재적 언어로 재해석한 신미경 작가의 논지는 텅빈 사이, 동양적 해석으로 보자면 허실상생(虛實相生)의 다양성을 드러냄으로써, 유물이 가진 원본성에 대해 가치론적 질문을 남긴다.

이렇듯 작가가 예술적 가치를 불어넣어 탄생한 작품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감상자에 의해 정의 내려지는 가치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 3. 평론

#### Vanitas, Beyond the Translation

Art Project CO(대표 임은혜)에서는 트랜스레이션을 가로지른 Vanitas를 새로운 개념으로 끌어들이며 기존 '페인팅시리즈'와 '고스트시리즈GhostSeries'에 내재한 가능성의 문을 두드리는 신미경 작가의 '과정형 전시'를 선보인다. '고스트 시리즈'는 무라노의 유리 공예같은 외연을 투명비누로 눈속임한 비누도자기를 활용한다. 이는 도자기의 비싼 원본 형태에 충실하되 특별히 고안한 몰드와 비누가 가진 일회적 속성을 '가벼우면서도 무거운, 허무한 가운데 짝 찬' 양가적 해석 속에 던져 넣는 철학적 작업이다. 작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주체화 시키는가에 있다. 우리의 눈이 만드는 근대 이후의 관계맺기는 인간의 흔적(유물론적 양식)이 만들어낸 허구적 신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페인팅시리즈도 이와 유사한데, 서양과 동양, 현대와 고전이 연결되는 오늘의 사유방식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을 '회의(回議)하라!'는 탈 상징적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신미경 작가는 탈 맥락화된 뮤지엄 유물들을 '식민지 이데올로기'로서부터 해체시키기 위해 '보이는 대상(Text)'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장치(Context)'들을 활용해, 무거움과 가벼움 사이를 넘나드는 이율배반적 해석구조를 사용해왔다. 이른바 트랜스레이션Translation, "신화화된 사유 안에 감추어진 과거의 간극"을 탈구조화 시키는 이중놀이를 통해 현재화 시키는 것이다. 신미경은 유물의 재현을 뮈토스Mythos적 구조 안에서 새롭게 재정의한다. 과거엔 종교였던 신화적 대상들은 믿음이 해체되면서 이성과 진리의 언어인 로고스(Logos)를 잃어버리고 아득한 과거에 대한 집단적 껍데기로 전락하는데, 대상만 남겨진 신화는 기존 의미와는 관계없이 허무로 전락한다는 뜻이다.

라틴어로 허무·허영·덧없음을 뜻하는 바니타스(Vanitas)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Vanitas vanitatum Et omnia vanitas)"라는 성경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구절로, 인생무상의 의미를 담은 허무주의로 해석된다. 바니타스를 현재적 언어로 재해석한 신미경 작가의 논지는 텅빈 사이, 동양적 해석으로 보자면 허실상생(虛實相生)의 다양성을 드러냄으로써, 유물이 가진 원본성에 대해 가치론적 질문을 남긴다. 프레임 안에 갇힌 페인팅과 근사한 도자같은 고스트시리즈는 기존 대상의 전복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방향을 암시하는 것이다. 인간은 죽음을 거역할 수 없는 존재이다. 바니타스는 인생무상(人生無常)을 뜻한다. 작가의 작품들은 성서에 등장하는 'Memento Mori(너의 죽음을 기억하라.)'와 같이, 죽음이 하는 말(=의인화한 죽음의 발언)을 통해

박물학이 제시해온 ‘근대주의적 사유’를 반성케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라는 교훈을 남긴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신미경의 작품들이 사실의 재현(the Representation of Reality)을 왜 번역하고 있으며, 왜 바니타스(Vanitas)를 통해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신미경의 트랜스레이션은 일회적 대상을 무게감 있는 신화구조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물질적이지만, 논리적 사색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비유와 직관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당신이 경이(驚異)롭게 보는 대상을 의심하라!”는 회의론적 철학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신미경의 ‘트랜스레이션’은 번역과 해석의 내러티브와 유물론적 해석의 탈피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탐구를 보여주는 과정지향적 작업인 것이다.

안현정 (미술평론가, 예술철학박사)

#### 4. 작가 약력

### 신미경 (SHIN Meekyung)

#### Education

- 2017 영국 왕립예술학교 석사 졸업
- 1998 런던 슬레이드스쿨 조소과 석사 졸업
- 199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석사 졸업
- 199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사 졸업

#### Selected Solo Exhibition & Project (2011-)

- 2021 Megalith, Ceramic Museum Princessehof, 레이우아르던, 네덜란드  
Abstract Matters, CR Collective, 서울
- 2020 In the Shadow of Time, Art' Loft, Leebauwens Gallery, 브뤼셀
- 2019 Weather, Barakat London
- 2018 사라지고도 존재하는, 아르코미술관, 서울  
오래된 미래, 우양미술관, 경주, 대한민국
- 2016 신미경 개인전, 스페이스K, 과천, 대한민국  
Cabinet of Curiosities, 학교재, 상하이, 중국
- 2015 Translation Paintings, Asia House, 런던  
Painting Series, Hada Contemporary, 런던
- 2014 Made in China: An imperial Ming Vase, Bristol Museum, 브리스톨, 영국  
A Cabinet of Curiosities: Meekyoung Shin, National Centre of Craft & Design, 링컨, 영국  
A Cabinet of Curiosities: Meekyoung Shin, Belton House, 그랜덤, 영국  
Toilet project, Sketch, 런던
- 2013 Written in Soap: A Plinth Project, 대만현대미술관  
Archetype: Meekyoung Shin, Sumarria lunn Gallery, 런던  
Unfixed: A solo exhibition by Meekyoung Shin, Korean Cultural Centre UK, 런던

PRESS RELEASE

트랜스레이션: 서사적 기록, 올해의 작가상 2013,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대한민국

- 2012 In between Translation, MOT ARTS, 대만  
Written in Soap: A Plinth Project, Cavendish Square, 런던  
2011 트랜스레이션 - 고스트 시리즈, 슝 아트클럽 1563, 서울  
Translation, Haunch of Venison Gallery, 런던

**Selected Group Exhibition (2012-)**

- 2021 5518. 8880, CU Coventry, 영국  
Fragrance & Nostalgia: Remembrance of Things Past,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대한민국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  
상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대전시립미술관, 대한민국  
Emotional Materials, Art' Loft, Leebauwens Gallery, 브뤼셀
- 2020 Korean Eye 2020 Creativity and Daydream, The state Hermitage Museum St.  
Petersburg / Saatchi Gallery, 런던  
해제-금지어: 여수국제미술전, 엑스포, 여수, 대한민국  
Unbreakable: Women in Glass, Fondazione Berengo Art Space, 베니스, 이탈리아  
Inspiration-Iconic Works, National Museum, 스톡홀름
- 2019 Start x Roland Mouret, Saatchi Gallery, 런던  
Pick Me: 재료사용법, 경기도미술관, 안산, 대한민국  
세종대왕과 음악, 치화평, 세종문화재단, 세종, 대한민국  
Age of Classics!, Le Musee Saint-Raymond, 틀루즈, 프랑스  
Welcome, 웰컴센터, 서울
- 2018 Material, Cob gallery, 런던
- 2017 In Motion: Ceramic Reflections in Contemporary art, Ceramic Museum  
Princessehof, Leeuwarden, 네덜란드  
Korean eye: Perceptual Trace, Saatchi Gallery, 런던  
Korean's Spirit, Artveras Contemporary, 제네바  
Korea Contemporary Ceramic, Victoria & Albert Museum, 런던  
The emerging and the established, 크리스티, 런던
- 2016 클럽 몬스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대한민국  
창원조각비엔날레, 성산아트홀, 창원, 대한민국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30년 특별전: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La Terre Le Feu L'esprit, Grand Palais, 파리  
Please return to Busan Port, Vestfossen Kunstlaboratorium, 노르웨이  
Ceramique Contemporaine Coreenne, Bernardaud Foundation, 리모주, 프랑스  
코리아 투모로우, 성곡미술관, 서울
- 2015 Rain doesn't falling for nothing, Kingston College Art& Design, 서리, 영국  
'Have a Good day, Mr. Kim!', Michael-Horbach Foundation, 쾰른, 독일  
Probühne 7, Museen Dahlem, 베를린  
How to construct a Time Machine, MK Gallery, 밀턴 케인즈, 영국  
Prudential Eye Awards, ArtScience Museum, 싱가포르
- 2013 Everyday Life, Asian Art biennale, National Taiwan Museum of Fine Art, 타이중, 대만  
Art for not making, Summaria Lunn Gallery, 런던  
Glasstress 2013 White Light/ White heat, Palazzo Cavalli Franchetti, Berengo  
Centre for Contemporary Art and Glass, 베니스  
Couriers of Taste, Dason House, Bexley Heritage Trust, 켄트, 영국

## PRESS RELEASE

DNA, 대구시립미술관, 대한민국

2012 Fabricated Object, Sumarria Lunn Gallery, 런던

Recasting the Gods, Sumarria Lunn Gallery, 런던

Korean Eye, Saatchi Gallery, 런던

The Diverse Spectrum: 600 years of Korean Ceramics, 상파울루현대미술관, 브라질

Synopticon-Contemporary Chinoiserie, Plymouth Museum/Saltram House, 플리머스, 영국

Korean Eye: Energy and Matter, Fairmont Bab Al Bahr, 아부다비

세라믹 코원, 아트선재센터, 서울

Material Matter, Courtauld Institute, 런던

세상만큼 작은, 나만큼 큰, 갤러리현대, 서울

### Selected Awards (2010-)

2021 서울 문화재단 기금, 서울

2019 문예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2017 문예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2016 서울 문화재단 기금, 서울

2015 Prudential Eye Awards, Best Emerging Artist Using Sculpture, 싱가포르

Research & Development Fund, Art Council England, 런던

2013 올해의 작가,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

2012 GFA, Art Council England, 런던

문예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 Collections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Houston Art Museum, 휴스턴, 미국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

Painting Studio, 도쿄

용산구청, 서울

몽인아트센터,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British Art Council, 런던

Bristol Museum & Art Gallery, 브리스톨, 영국

Princessehof Museum, Leeuwarden, 네덜란드

매일유업, 서울



5 출품작 이미지



신미경, Painting Series #90, Soap, Fragrance, Frame, 113x151.6 cm, 2014





신미경, Painting Series #76, soap, frame, pigment, fragrance, 81x111.5x10cm, 2014

PRESS RELEASE



신미경, Painting Series #75, soap, frame, pigment, fragrance, 107.5x48.5x6cm, 2014



신미경, Painting Series #21, soap, frame, pigment, fragrance, 73x81.5x7.5cm, 2014



신미경 <Ghost Series> 전시전경

# Art Project **CO**